

바른시민생활활동*

한 승 희**
이 완 수
이 춘 화
송 선 희

- I. 바른시민생활 활동에 관해서
- II. 바른시민생활 인식하기
- III. 바른시민생활 이해하기
- IV. 바른시민생활 실행하기
- V. 요약 및 제언

I. 바른시민생활 활동에 관해서

요즘 영상활자 매체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인지되거나 길거리에서 흔히 부딪치는 ‘신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는 그들 나름의 개인주의적 솔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대다수인 신세대는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본위적이고, 더불어 지내기

보다는 독자적이고, 또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보다는 차별적이고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오늘날, 이런 한국 청소년들은 그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함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우리들 의식에 기반을 둔 횡적 결합관계에 있는 ‘시민’, ‘공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社會人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위유형을 습득하지 못하면 개인의 행위는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신뢰를 전제로 한 민주 시민사회는 유지하기 힘들어 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신과 자유가 무한하고 개인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한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종합적인 인식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것은 ‘身土不二’라는 유행어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인식과 행위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4년도 연구사업인 「바른시민생활활동」의 「지도자용 지침서」를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한승희(연구실장), 이완수(선임연구원), 이춘화(연구원), 송선희(임시연구원)임

(身)는 시대적이고 사회(土)적 이어야 하는(不二)것이다.

따라서, 현대 청소년의 행위를 관찰,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조건을 갖춘 시민이 가장 바람직한가? 간단히 답하자면 민주 시민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인 시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버튼(1989, p.136)은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있다.

“시민성의 강조는 공립학교가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시민적 가치와 시민적 지식,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세력이 되어 한다는 특별한 의무와 정당성을 지녔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약속된 자유, 평등, 정의, 그리고 대중적 합의 등을 강화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성을 전제로 한 바른 시민생활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시민이라는 개념과 그 바탕에 깔려있는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서양적인 것이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서구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개념이다. 민주주의란 정치의 한 양식만이 아니라 주로 사회생활의 한 양식이며 공동경험의 한 양식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시민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들은 네 가지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처음 두 가지는 청소년들 자신이 개선하여야 할 내적인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외적인 시민성 교육환경 문제이다. 첫째, 청소년들의 실천성 문제이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가치나 선악의 구별

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도덕수업같이 여기고 실생활에서의 행위는 전혀 새로운 청소년들의 고유의 가치 또는 몰가치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런 부조화 현상은 시민생활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영향을 받았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실천적 행위로서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보다도 추상적인 이념과 원리를 선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적 행위의 생활화를 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들은 사민주의적 생활양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를 엄격히 구별할 줄 아는 공공정신을 내면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로써, 한국인들은 일반 가치지향 보다는 타인 지향적이며 상황 가치 지향적인 맹점을 갖는다. 셋째, 시민생활 교육이 정부 주도하에 일률적이고 주로 정책 우호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물론 획일성은 민주시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 본질과 멀고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강제나 교리화 보다는 인간교육을 통하여, 확실한 신념에서 우러나는 소신에서 체제의 가치에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교육 기관에서 제시된 목표적 행위가 민주시민의 소극적인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바른 시민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와 태도는 크게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의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걸쳐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별성과 전체성, 다양성과 통일성,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질서, 권리와 의무, 자기주장과 상대방 인정, 선택과 자기책임, 비판과 타협, 참여와 준법 등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게 되면, 민주주의 개념은 벗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후자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였다. 한국의 경우는 정치 참여를 교육의 목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국민 주권이 민주정치의 원리이며, 국민의 자발적 동의가 정치적 정통성의 기준이라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혁 과정에서 이보다는 지도자의 역할, 민족의 화합을 더 중시하기도 하였고, 선거만이 국민의 정치 참여 방식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집회와 결사, 또는 사회 운동 등은 사회 혼란의 주범처럼 취급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다. 공식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 및 행위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켜 주어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파악하여 자율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현상을 자각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첫째 목표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지된 것을 생활과 연결시키는 고리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극적으로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결사체의 참여나 주인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련거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세계화 또는 국제화라고 표현되는 변화가 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리와 같은 시민생활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힘들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참여를 통해 체득하여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앞의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먼저 바른 시민의 자질과 바른 시민생활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는 시민생활의 두 가지 측면인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나누어 이해와 실행의 두 단계로 구성하였다.

II. 바른 시민생활 인식하기

이 장은 각 세부적인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인식의 과정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바른 시민활동의 실천적인 당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바른 시민 활동은 개념자체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분야를 확실히 한계 지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개념(자유민주주의, 민주시민생활), 시민성(통합성, 다양성), 그리고 바른 시민가치(공동체 의식, 수평적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1. 시민 — 민주사회의 주인

1) 개요

바른시민 생활은 곧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아무래도 시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활동은 다른 활동과는 달리 강의와 토론을 통해 많은 부분이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는 시민에 대한 정의를 배울 때 수강태도와 토론방식에서 바른 시민성향을 느끼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2) 목표

시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강의 수용과정과 각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을 수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 시민태도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느낀점을 정리하여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한다.

3) 활동과정

- 민주주의와 시민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 청소년을 크게 두편으로 나눈다. 한편은 강의와 토론 이전과 이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청소년이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할 민주덕목표를 만들고 다른 한편은 전통문화를 현대에서 되살릴 수 있는 민주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덕목표를 만든다.
- 이러한 활동과정 후에 편이 모두 모여 두가지 덕목표를 합쳐 보다 포괄적인 민주덕목표를 만들어 본다. 여기서 예상되는 결과는 전통적인 요소와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강의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여(예로 든다면 정치적 원리모듬, 국가형태모듬, 생활양식모듬) 각각 토의하게 하고 모두 모여서 민주주의 어원의 차이와 평을 한다.

2. 색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1) 개요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불란서 대혁명 때 표방된 자유, 평등, 박애의 세원칙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다수의 민주국가들이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이념을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기본이념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생활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배양하는 것이 바른시민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표

시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강의 수용과정과 각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을 수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 시민태도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느낀점을 정리하여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한다.

3) 활동과정

- 6~8명으로 모듬을 만든다.
- 자유로운 행동, 남녀평등 및 박애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청소년에게 주고 토론을 시킨다.
- 각 모듬 구성원은 각 발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남녀 불평등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전체가 다시 모여서 발표를 한다. 이 때 청소년들 스스로가 100점 만점의 평등점수가 있으면 자신은 몇 점을 맞을 수 있는가를 표현해본다.
- 야외활동이 가능한 장소라면 박애(사랑)를 실천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시켜서 장애자의 애로점을 인식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두사람씩 짝을 지어 한사람은 눈을 가리고 다른 한사람은 입을 가린후 눈을 가린 사람은 입을 가린 사람을 엮는다.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임인데, 엮힌 사람은 말이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엮은 사람을 인도한다.
- 활동이 끝난 후 지도자는 어떤 발표가 제일

인식의 전환에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들려주면서 정리한다.

3. 바른 시민이 되는 길

1) 개요

바른 민주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천이다.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민주주의 개념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몸매에 밴 실천을 위한 바람직한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될 것이다. 청소년이 어리고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다고 소극적인 시민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에서는 적극적인 측면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사회유지를 위한 민주질서준수를 인식해본다.

3) 활동과정

- 청소년을 크게 두 편으로 나눈다. 한편은 보행자의 질서를 관찰하고, 다른 한편은 운전자의 운전질서를 관찰한다. 관찰 시간은 차량의 통행이 많을 때 한시간 가량과 비교적 적을 때 한시간 가량 2회에 걸쳐서 실시된다.
- 지도자는 안전운전과 보행에 관한 수칙을 강의한다.
- 보행자관찰은 세모둠으로 나뉜다. 첫째 모듬은 건널목에서 신호대기할 때의 행위를 관찰한다. 관찰할 사항은 ‘차도에 내려와 있는지 여부’, ‘침이나 담배꽂초 버리는 행위’ 또는 ‘신호대기에 대한 불평’ 등이다. 둘째는 건널목을 건널때 ‘좌측통행은 하는지’,

‘건널목을 벗어나서 보행하고 있는지’ 또는 ‘보행신호가 끝날때 급하게 건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 모듬은 건널목이외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관찰한다. 성별과 시간당 위반 숫자 및 연령층을 조사한다.

- 운전자관찰조는 네모듬으로 구성된다. 첫째 모듬은 교통신호 준수여부를 관찰하고 둘째 모듬은 건널목에서 안전선에 정착하는지와 보행신호중 통과여부를 감시한다. 세째모듬은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U턴이나 좌회전을 하는지를 본다. 마지막 모듬은 차선준수와 경적기 사용에 대하여 기록한다.
- 관찰기록을 가지고 청소년이 느낀점을 발표시킨다. 지도자는 발표를 할 때 시간별, 연령별, 성별 또는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인식정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4. 세계의 민주주의

1) 개요

현대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사회이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서도 살 수 없다. 청소년들이 사회속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른 민주시민의 자세인 것처럼 세계를 한 국가와 같이 생각하여 세계인으로써의 바른 시민생활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국제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2) 목표

민주화의 정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세계 지도를 그려보고 국제적인 인권문제 - 세계적 상황과 남북문제 - 와 민주질서 유지에 대하여 토론한다.

3) 활동과정

- 3~5명으로 모둠을 나눈다.
- 세계지도를 그릴 때는 청소년들이 흥미없어 하면 지도자는 미리그려진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모둠의 협동심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지도를 그리게 한다.
- 세계지도를 그린후 두가지 방법으로 채색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공산권, 민주권 및 제3세계권으로 나누어서 채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대비를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번째는 동구 공산주의국가가 붕괴된 후의 상황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민주주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으로 색칠하는 것이다.
-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하여 채색을 하는데 진하고 옅음과 어둡과 밝음의 차이로써 민주주의 정도를 나타내 수 있다.
- 청소년으로 하여금 활동에 참가하여 민주주의의 국가적차이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발표시킨다.
- 지도자는 민주화정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갈등적 상황을 주제로 주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토론시킨다. 민주시민 생활자세를 습득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의 진행은 자율을 원칙으로 한다.
- 토론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 아이티의 상황(독재정권문제), 르완다 문제(기아와 질병문제), 이란·이라크사건(국가의 독립과 자주권문제), 프레온가스(CFC) 금지(공해문제), 남북한 문제(민족문제).
- 토론결과발표시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만약

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부가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청소년에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일깨울 수 있다.

Ⅲ. 바른시민생활 이해하기

이해활동은 실행활동과 더불어 민주시민으로써의 소극적 및 적극적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 소극적 측면의 시민활동은 자율에 바탕을 둔 민주시민활동의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연하자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초질서 확립을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까지 지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 즐거움을 꾸민다. 각 고려된 요소는 인간존중(비차별-민부, 성, 장애자, 개성존중, 인명존중),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개방성, 자율성, 그리고 준법성(질서외식, 약속) 등이다.

한편, 적극적인 시민활동은 자주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한다. 소극적인 시민활동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한 의무나 책임을 강조한 반면에 적극적인 활동은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강조가 되는 내용은 정치적 참여(자치활동 참여, 선거참여)와 사회적 참여(지역사회봉사, 사회비판의식과 고발정신 고양)이다.

1. 지켜보자! 기초질서

1) 개요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여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 가고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의존하고 협

동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의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생활의 기초로써 질서를 지키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2) 목표

빙고게임과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어떤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이 어기는 것인가를 알고, 올바른 기초질서 지키기를 이해한다.

3) 활동과정

- 모둠을 구성하고 포인트 OL경기 방법을 적용한다.
- 정해진 곳을 포스트로 지정하고 지도상으로 표시를 한다. 이 때 유의할 사항으로 안전에 대한 배려로서 위험한 절벽이나 하천, 그리고 동·식물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 포스트에 깃발을 설치한다. 포스트를 설치

하는 기준은 기초질서가 자주 어겨지는 곳으로 한다.

- 참가자에게는 출발 2분전에 지도를 지급한다. 이는 지도를 모둠들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 모듬 구성원 모두가 협동해서 지도상에 표시된 포스트를 모두 찾고 통과하면 결승점으로 돌아 온다.
- OL이 끝나고 내용을 정리한 후 빙고게임을 한다.
- 모듬 구성원 각각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초질서를 어긴 예로 칸을 채운다. 칸 수는 시간과 인원수에 맞추어 진행자가 적절히 정한다.
- 먼저 빙고를 외치기 위해서는 칸을 되도록 일상적으로 어기게 되는 기초질서위반 예로 적는 것이 좋다.
- 모듬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한가지씩 이야기하고, 이야기 한 것이 자신의 빙고카드에 있으면 해당되는 것을 지운다. 가로나 세로,

빙고카드의 예 (4×4의 경우)

거리에 침 뱉기	약속 안지키기	불 친 절	싸움, 폭력
공연장에서 시끄럽게 하기	무단횡단	인사 안하기	도서관에서 떠들기
통화 오래하기	차안에서 시끄럽게하기	휴지버리기	줄 새치기 하기
밤늦게 남의집 방문하기	담배 꾀초 버리기	차도에서 자전거 타기	교양없는 말하기 (폭언하기)

대각선으로 4줄을 먼저 지운 사람을 우승자로 한다.

2. 그래 결심했어

1) 개요

시민생활의 소극적 측면의 하나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들 수 있다. 또 경제생활 중에서도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생각할 때 시민으로써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품을 사용할 경우와 수입품을 사용했을 경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가능하다.

2) 목표

수입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국산품을 사용할 경우와 수입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상황극을 전개해 봄으로써 국산품을 왜 써야만 하는지 이해한다.

3) 활동과정

- 모둠을 구성한다. 모둠 구성원은 10명 정도가 적당하다.
- 수입품 조사표를 작성해 본다.
- 수입품을 조사할 때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

히 접하게 되는 것으로 적는다. 만일 여러 종류의 수입품을 한꺼번에 다루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한가지 품목을 정해서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 조사표가 다 되었으면 조사표를 정리하여 모듬구성원은 ‘국산품을 썼을 경우’라는 제목과 ‘수입품을 썼을 경우’라는 제목하에 상황극을 전개해 본다.
- 상황극의 진행과정은 국산품을 써야하는 경우와 수입품을 써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을 설정해 놓고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연출해 본다.
- 상황극은 국산품을 썼을 경우에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고 무엇 때문에 국산품을 쓰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을 썼을 경우에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고 무엇 때문에 수입품을 쓰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 상황극을 통해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가 되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일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수입품 조사표의 예시〉

제품종류	상품명	수출국	쓰게되는 이유	필요의 정도	대체국산품	비고
과자류	리쯔	미국	맛있으니까	상 중 하		
컴퓨터	IBM	미국	성능이 좋아서	상 중 하		

3. 권리와 의무

1) 개요

태어나자마자 한 국가의 국민이 된 개인을 위하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천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자신의 권리는 반드시 확보하고 행사하여야만 사회 정의가 확립되고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또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2) 목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행사 방법을 이해한다.

3) 활동과정

-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 사례를 모둠별로 조사한다.
- 모둠별로 조사한 것을 모듬의 대표가 나와서 발표한다.
- 사례를 정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라는 제목과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했을 경우’라는 제목 하에 상황극을 전개해 본다.
- 상황극의 진행과정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와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라는 양자택일 상황을 설정해 본다. 그에 따른 상황극을 전개한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넣는다.

-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자세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 지도자는 중요한 것이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가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또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4. 민주주의 현장으로

1) 개요

국회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바른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2) 목표

비디오를 통해 민주적 회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난후, 국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국회를 견학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이해한다.

3) 활동과정

- 민주주의 회의 진행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본다.
- 다음의 내용을 파악한다.
 - 회의 진행절차는 무엇인가
 - 무엇이 민주적요소인가
 - 의사전달의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 모듬을 구성한 뒤 참고자료를 통해서 국회의 성격과 하는 일을 조사한다.
-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한다.
- 국회의 구성원, 회기 등을 조사한다.
- 국회 견학은 국회의 경위과에서 담당한다.

전학 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 준비물을 갖추고, 국회의 위치 등을 조사한다.
- ‘가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를 확인해 둔다.
-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본다.
 - 국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
 - 국회에서 실제로 하는 것
 - 국회에서 시정해야 할 점
 - 국회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

IV. 바른시민생활 실행하기

1. 나의 결정

1) 개요

인간 사회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 나가려면 모든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이 필요하다. 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규범은 법으로서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의 운영규범이며,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규칙에 따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초질서에 관한 법규정을 알아 보고, 청소년들의 규칙을 만들어 본 후,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의 방안을 강구해 본다.

2) 목표

우리나라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질서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청소년 활동집단의 내부규칙을 만들어 본 후에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서 모의 즉결심판을 구상해 실현해 보도록 한다.

3) 활동과정

- 참여자를 10명 이내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모둠을 구성하여 기초질서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을 알아 본다.
- 기초질서에 관해 규정해 놓은 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먼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범죄가 무엇인지 알아 본다.
-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행위와 직접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행위를 골라서 적어 본다.
- 경범죄중에서 전에 자신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행위와 아직은 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골라 적어 본다.
- 각자 적은 내용을 돌려 보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법규범 외에도 각 기관과 단체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마련해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청소년들도 전원이 참석하여 활동의 질서를 지켜 나갈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본다.
- 규칙의 내용은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안에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많아서도 안된다. 또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해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 규칙의 표현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 규칙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큰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 놓거나, 인쇄하여 나누어 봄으로써 공공적인 것이 되도록 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정해진 규칙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 위반시의 벌칙은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마련해 놓아야 한다.
- 참여자들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가상하여 상황극으로 꾸며 본다.
- 기초질서를 어긴 경우 보통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로 시나리오를 구상해 연기해 본다.
- 먼저 몇명의 참여자가 그들이 정해 놓은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묘사한다.
- 경찰의 역할을 맡은 참여자가 그들을 단속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 당직판사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벌칙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질서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선고한다.
- 질서위반자가 선고받은 벌칙을 수행하는 연기를 하면서 상황극의 막을 내린다.

2. 질서는 내가 먼저

1) 개요

민주 사회는 시민 자신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키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바른 시민이 되려면 장래에 그들이 당면할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그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는 사적인 문제도 있고 공적인 문제도 있다. 시민으로서의 결정의 문제는 공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구별하고, 공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며, 합리적인 결정을

을 해 본다.

2) 목표

게임을 통해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 사실 주장과 의견을 구분해 보고, 가치갈등상황의 당사자가 되는 역할극을 통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3) 활동과정

- 참여자들은 2명씩 짝을 정하고, 마주 앉는다.
- 먼저 2명씩 짝을 이룬 각 모둠들은 각각 생각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정한다.
-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한명은 그와 관련된 공적인 사안을, 다른 한명은 사적인 사안을 이야기한다. 이때 이야기하는 순서는 '가위 바위보'로 정한다.
- 상대방의 대답이 막히면 미리 정해 놓은 벌칙을 부과한다.
- 몇가지 주제에 대해 공사구분 게임을 하고 나면, 모둠별 대항을 벌인다.
- 게임이 끝나면 각 모둠은 몇가지 주제를 정해 공사 구분표를 만든다.
- 활동장소에 커다란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려 놓고, 동그라미에는 사실주장, 네모에는 의견이라고 큰 글씨로 적어 놓는다.
- 지도자가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주장을 이야기 해주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주장이 사실주장이라 생각되면 동그라미 칸으로 들어 가고, 의견이라고 생각되면 네모칸으로 들어간다.
- 틀린 사람들은 옆에서 구경하도록 하고, 맞춘 사람들에게만 다시 질문을 해 게임을 계속해 나간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공사구분표 예시〉

주체	공적인 일	사적인 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수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 세관에서의 보건검역을 강화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수를 먹을까, 보리차를 끓여 먹을까? •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을 것인가?
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에서의 애완동물 배설행위를 단속할 것인가? • 공공체육시설의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를 기를 것인가 고양이를 기를 것인가? • 주말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지 계속한다.

- 지도자는 지금까지의 상반된 상황에 가치 갈등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참여자가 의견을 주장하도록 한다.
- 가치선택을 위한 토론이 무르익으면, 다시 새로운 사안으로 이번에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치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참여자에게 그 사례의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의견주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역할극을 꾸며 본다.

3. 나는 민주시민

1) 개요

바른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하거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거, 회의, 시민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체험해 봄으로써 바른 시민생활을 실행해 본다.

2) 목표

선거를 통해 청소년활동 대표자를 뽑아 보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회의를 진행해 보며, 회의를 통해 결정된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보도록 한다.

3) 활동과정

- 청소년활동 참여자 중에서 그들의 대표를 뽑기 위하여 먼저 참여자들의 추천과 거수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으로 참여자 20명 : 선거관리위원 1명 정도의 비율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과 후보자 등록상황, 당선인을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관리, 투표용지 작성, 개표관리 등의 일을 맡는다.
- 선거일을 공고하고 나면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 후보자는 일정 인원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 개표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담당하고, 후보자마다 1명씩 개표참관인을 선정해 참석하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고한다.
 - 선출된 청소년활동 대표자가 의장이 되어 청소년활동을 함에 있어 당면한 문제를 안건으로 하여 청소년회의를 진행한다.
 - 의사봉, 회의진행순서, 회의록, 필기도구, 참석자가 많을 경우 마이크 등을 준비하고,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미리 통지한다.
 - 청소년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참여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참여의 방법에는 각종 단체에 가입해 의견을 모으는 것, 일간지나 잡지 등에 의견을 투고하기, 정부기관에 편지쓰기, 시민운동단체의 구성과 참여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의견의 투고나 편지쓰기일 것이다.

4. 우리는 세계시민

1) 개요

현대 사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놓았고, 미래에는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먼저 모든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조차 지역간의 화합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남북이 갈라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쌓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갈등 해소방안을 찾아보고, 통일을 대비하며,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살펴본다.

2) 목표

우리나라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고, 남북간의 언어의 차이를 퀴즈를 통해 알아보며, 외국의 시민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간 국가간의 벽을 허물고 세계시민의 자세를 쌓도록 한다.

3) 활동과정

- 참여자를 10명 이내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우리나라 각 지방의 특징을 조사한다. 주제를 예를 들면, 민요, 방언, 음식, 놀이, 지형, 기후 등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복사하여 돌려 본다.
- 참여자를 우리나라 각 지방의 숫자에 맞게 집단을 구분한 후, 각 모둠별로 지방을 정한다.
- 지도자가 한가지 주제를 정해 놓고, 각 모둠의 정해진 지방을 지적하여 그 모둠이 맡은 지방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음식을 주제로 정한 경우, 함경도를 지목하면 함경도지방의 특징적인 음식과 조리법을 설명하고, 민요를 주제로 정한 경우, 전라도를 지목하면 전라도 민요를 부르는 것이다.
- 게임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기른다.

- 특히 남한과 북한간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언어의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와는 다른 북한말을 알아맞추는 퀴즈를 한다.
- 각 모둠은 순서대로 나와 마주 앉고, 지도자가 한명에게만 보이도록 단어장을 한장씩 보여 주면 앞의 짝에게 이를 설명하고 알아 맞추도록 유도한다.

V. 요약 및 제언

바른 시민생활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을 강조하여 더불어 사는 생활태도를 길러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근간이 되는 것은 협동과 타인존중을 강조하는 측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과도 상응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구민주주의적 특징이라고 해서 이질적이거나 갈등적인 것 만은 아니다. 한편 서구 민주주의는 다른 측면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나 정치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시민자세가 민주 시민사회의 안정과 협동을 파괴하는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시민생활자세를 갖기 위하여 권장되어야 할 덕목임을 청소년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바람직한 생활양식과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수련거리 내용을

을 구성하였다.

바른 시민생활이라는 것은 매 순간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치판단을 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치관 연관활동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본 프로그램은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취해지는 것과 같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써 민주적 시민 자세를 내면화하여 메시에 가치판단의 과정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련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조자의 역할 수준에서 모든 활동이 실행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민주생활의 추상적인 개념의 주입이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참여를 통한 체험적인 이해가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도자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진이 개발하고자 하는 바른 시민생활 활동은 세단계로 되어있는데 내용은 청소년의 시민생활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지도자가 융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는다. 더욱이, 참고는 지도자들에게는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청소년에게는 수련활동 전후로 하여 시민에 대한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_____. 1993. 「행동의 연습과 체험의 중요성」, 철학과 현실, 1993 가을(통권 제 18호. 철학문화연구소)
- 손봉호. 1993. 「사회윤리 정립원칙으로서의 합리적 이기주의」, 도산 학술 논총, 제3집,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 인천도덕교사모임. 1994.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덕수업」, 내일을 여는 책.
- 재철학원. 1990. 「바른가정교육」, 재철학원.
- 전득주 외. 1992. 「현대 민주시민 교육론」, 평민사.
- 정덕장. 1994. 「경범죄 처벌법」, 법원사.
- 한국교육개발원. 1990. 「민주사회 민주시민 - 학생용」,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고등학생용 민주시민 교육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고등학생용 민주시민 교육자료 -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 우리와 나-1, 2학년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 우리와 나-1, 2학년용」,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 우리와 나-3, 4학년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 우리와 나-3, 4학년용」,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 우리와 나-5, 6학년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 우리와 나-5, 6학년용」,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민주적 학생지도 민주적 학교운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국민윤리학회. 1993. 「민주시민을 위한 윤리 도덕」, 형설출판사.
-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모의지방의회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경식. 1991. 「이기적 불신의 비합리성과 시민공동체의 유대」, 한국의 시민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_____. 1993. 「사회개혁과 시민의식」, 철학과 현실, 1993 가을. 통권 제 18호. 철학문화연구소.
- 웨이시온 외 2인. 1992. 김교환외 4인 역, 「가치와 사회」, 교육과학사.
- Chazen, Berry . 1985. Contemporar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N.Y. : Teachers College Press.
- Butts, R. Freeman. 1988. The Mor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Goals for Civic Education in the Republic's Third Century, California : Center for Civic Education.
- _____. 1991. "Personal Preface", Civitas, California, Center for Civic Education
- Engle, Shirley H., Ochoa, Anna S. 198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Gauthier, D. P. 1986. Morals by 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김형철 역. 1993. 합의도덕론,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Kohlberg, L. 1981. "Essays on Moral Development",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Vol 1, N.Y : Harper and Row.
- MacIntyre, Alasdair. 1984. *After Virtue*, London : Gerald Duckworth & Co. Ltd. —
- Proctor, Robert E. 1988. *Education's Great Annesia*, Indiana univercity press.
- Raths, Harmin, and Simon. 1977. *Values and Teaching*, Ohio, Charles E.Merrill.
- Tilley, J. 1991. "Altruism and The Prisoner's Dilemma",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69, No.3.
- Toulmin, S. 1989. "The Logic of Moral Reasoning" in James P. Sterba(ed.), *Contemporary Ethics*, Prentice-Hall.
- Warnock, G. 1989. "The Object of Morality" in Louis P. Pojman(ed.), *Ethical Theory*, Wadsworth Publishing CO.